

2021
고3 3모

2021년 시행 고3 3월 학평 국어 문학 선을 환생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망덕사의 승려 선을(이야기의 주인공)은 돈을 시주받아 '육백반야경(六百般若經)'(주인공이 만들려고 했던 목표)을 만들려 하다가 완성되기 전에 갑자기 저승사자에게 쫓겨 염라대왕에게 갔다. (비현실적인 공간 설정)(주인공의 죽음)(서술상의 특징을 확인하는 문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염라대왕이 물었다.

“너는 인간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였느냐?”(염라대왕의 물음)

선율이 말했다.

【“소승은 늘그막에 대품반야경(大品般若經)을 완성하려고 했으나, 과업을 이루지 못하고 왔습니다.”】(염라대왕의 물음에 대한 선율의 대답, 문답의 형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음)(서술상의 특징을 확인하는 문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염라대왕이 말했다.

【“네 수명은 비록 다하였으나 좋은 소원(‘대품 반야경’을 완성하는 것)을 다 마치지 못했으니,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 보배로운 불전을 끝마치는 것이 마땅하다.”】(선율이 환생하게 되는 이유)(이승에서의 선업으로 인해 상을 받았음)(내용 일치 유형으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고는 선율을 인간 세상으로 돌려보냈다.(선율의 환생) 돌아오는 길에 한 여인이 울면서 선을 앞에 와 절을 하고 말했다.

“저 역시 남염주 신라(구체적인 시대적 배경) 사람인데, 부모가 금강사의 논 한 이랑을 몰래 훔친 죄에 연루되어(여인이 저승에 온 이유)(이승에서의 악업으로 인해 벌을 받았음)(‘여인’은 부모의 잘못으로 저승에 왔다.’라는 선지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저승에 잡혀 와서 오랫동안 무거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범사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시거든 제 부모에게 이 일을 말하여 빨리 그 논을 돌려주도록 해 주십시오.(여인의 부탁①) 또 제가 세상에 있을 때(여인이 죽었음을 알 수 있음) 참기름을 침상 아래에 숨겨 두고, 곱게 짠 베를 이불 사이에 감추어 두었으니, 【범사께서는 제 기름을 가져다 불등(佛燈)을 켜 주시고, 그 베를 팔아서 불경을 베끼는 비용으로 쓰십시오.】(여인의 부탁②) 그렇게 해 주신다면 황천에서도 은혜를 입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율이 말했다.

“그대의 집은 어디에 있는가?”

“사랑부 구원사의 서남리입니다.”(구체적인 공간적 배경)(서술상의 특징을 확인하는 문제에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선율이 그 말을 듣고 막 가려 할 때 다시 살아났다. 이때는 선율이 죽은 지 열흘이 되어 남산 동쪽 기슭에 이미 장사 지낸 후였다.(죽음 이후의 시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선율이 무덤 속에서 사흘 동안이나 살려 달라고 부르짖자, 지나가던 목동이 이 소리를 듣고 절에 알렸으므로 절의 승려가 가서 무덤을 파고 꺼내 주었다. 선율은 전에 있었던 일을 다 말하고 그 여인의 집을 찾아갔다. 여인이 죽은 지 15년이 지났는데, 참기름과 베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증거물) 선율이 그녀가 말한 대로 명복을 빌었더니 여자의 혼이 와서 아뢰었다.

“스님의 은혜에 힘입어 저는 이미 고뇌에서 벗어났습니다.”(선율에 대한 감사 인사)

당시 사람들은 이를 듣고 모두 놀라 감탄하지 않는 자가 없어 그를 도와 불경을 완성시켰다. 불경은 경주의 승사 서고(僧司書庫) 안에 있다.(증거물, 이야기의 신뢰성을 부여함)(‘작품의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선지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매년 봄과 가을에 그것을 돌려 읽으며 재앙이 물러가기를

빌었다.

- '선을 환생'

■ 핵심 정리

- 갈래 : 고전 산문('삼국유사'에 수록된 이야기)
- 성격 : 비현실적, 전기적, 교훈적
- 제재 : 이승, 저승, 환생
- 주제 : 이승의 행위에 대한 저승에서의 가치 판단을 통한 선업과 악업의 구별과 상벌.
- 특징
 - ① 인물들의 구체적인 행위가 나타남.
 - ② 부탁과 이를 들어주는 이야기 구조가 나타남.
 - ③ 비현실적인 사건을 통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함.
 - ④ 작품의 교훈적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이해와 감상

선한 행위를 하면 극락에 가고, 악한 행위를 하면 지옥에 간다는 불교의 가르침은 불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삶의 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었다. 일연의 '삼국유사'에 수록되어 있는 이 작품의 설화가 바로 그런 이야기이다. 지옥 이야기의 중요한 구성 요소를 잘 갖추고 있는 이 설화를 통해 불교가 성행했던 시기에 지옥의 가르침이 어떻게 일반인들에게 전달되었고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서지정보

저자 이재균

발행처 나무아카데미

isbn 979-11-377-0324-7

제본형태 hwp pdf 파일

발행일 2021.03.26

가격 500원

값 500원

